



지난 28일과 29일 정읍사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개최된 '제30회 정읍사문화제'가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평생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

정읍사문화제 성료... 부도상 시상·퍼레이드·공연 등 다채

정읍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정읍사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개최된 '제30회 정읍사문화제'가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정읍사문화제는 정읍사 여인의 송고하고 아름다운 부덕과 정절을 기리며 천혜의 비경 내 장산의 아름답고 붉은 단풍과 함께 하는 문화 축제다. '천 년의 기다림, 가요와 사랑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시민과 정읍을 찾은 관광객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을 추억을 남겨줬다는 평이다. 28일 오전 채수 의례와 정읍사 여인 제례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정읍사문화제는 전문 퍼

포먼스 팀의 화려한 거리퍼레이드로 이어졌다. 오후 6시 정읍사공원 특설무대에서는 가수 송가인의 개막 특별공연에 이어 부도상 시상식(오광순, 정읍시 신태인)과 함께 경관 조명 점등식,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특히, 레이저와 서치라이트 등 3차원 조명기법을 도입한 화려한 불꽃쇼와 LED 풍선 날리기 등 러브판타지쇼는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29일 오후 6시에는 정읍사가요제가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가요제는 전국에서 150여 명이 신청, 지난 21일 예심을 거쳐 본선 진출 11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이날 11개 팀의 경연 결과 김형환씨가 '고한

우의 압연'이라는 노래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시상금 3백만원과 가수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이 밖에도 사랑의 열쇠 보내기와 소원 등 달기, 일루미네이션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정읍사공원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유진섭 시장은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여인의 송고한 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 정읍사문화제가 천년의 부부 사랑을 보전 계승함은 물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나아가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읍 만들기의 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사공원 일원과 정동교에 조성된 형형색색의 화려한 야간 경관조명과 포토존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10월 말까지 유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원광대 지역인문학센터, What the 사람책2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오는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교내 자연식물원에서 'What the 사람책2(왔다! 사람책!)'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HK+지역인문학센터와 익산 희망연대 시민교육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일대일 혹은 다대일로 만나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책 도서관이다. 특히 독자들이 책 대신 사람을 일정시간 빌려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읽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을 바로 물을 수 있는 점이 사람책 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번 참여하는 사람책은 이상훈 국립생태원 기후변화 팀장의 '배가 산으로 가다'를 비롯해 이종덕 무형문화재 43호 방짜유기장의 '방짜', 김미전 마을기업 커피여행 대표의 '어쩌다 마을기업', 최광동 청소년열매나눔공동

체 대표의 '청소년의 봄, 우리들의 봄', 이두연 익산시 최초 이주여성 공무원의 '다문화사회 알아보실래요?', 윤정이 꿈미투협동조합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돌봄&성장공동체 대표의 '달팽이의 꿈', '문이화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익산문화유산, 수다로 풀어볼까요?', 장운영 사회적기업 천년누리 대표의 '장운영의 비빔밥 상상력'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을 만날 수 있다. 지역인문학센터장 강연호 교수는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경험과 생각,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주변의 누구나 다 한 권의 사람책이 될 수 있다는 가치를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What the 사람책2(왔다! 사람책!)'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 희망연대 사무국(063-841-7942)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제5회 송미령 개인전이 10월 3~9일까지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유니크한 한지에 현대적 감성담아

서학아트스페이스서 송미령 개인전 '韓·紙·美·感-Lighting' 개최

제5회 송미령 개인전 '韓·紙·美·感-Lighting'이 10월 3~9일까지 서학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제5회 개인전 '韓·紙·美·感-Lighting'은 가을에 어울리는 고즈넉한 빛, 한지 등 50여점이 전시된다. 예원예술대학교 한지공간조형디자인학과 송미령 교수의 제4회 개인전 '韓·紙·美·感' 전시가 가구 위주로 한지공예의 발전된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고 색한지를 이용한 컬러조합의 다양성을 추구한 특징이 돋보였다고 한다. 이번 전시는 좀 더 유니크하고 친근한 한지의 모습을 보여주자 했다. 한지를 통해 나오는 빛이 깊어가는 가을에 예술마를 '서학'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리라고 생각이 된다. 작가가 작품에서 나타내고자하는 것은 전

통의 범주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전통을 재해석하고 응용하여 현대적 감성을 담아 보고자하는 것이다. 오래된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는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단에 서고 있는 작가로서는 '오래된 미래를 앞장서서 만들어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발전과 도전을 심어주는 교육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 믿기 때문이다. 한편, 송미령 작가는 20년전 1999년 김혜미작가생(전북무형문화재 색지장)을 만나 한지에 입문하여 작품에 전념하였으며 그 과정 중에 대학원을 마치고 강단에서 강의와 작업에 열중하다가 교수로 임용돼 예원예술대학교 한지공간조형디자인학과에서 후학양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완판본문화관, 전주의 기록 문화 담은 특별한 전시 선보여

대장경문화학교가 운영하는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에서는 2019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신을 쓰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대전에서 완판본문화관은 전주의 기록 문화를 담은 특별한 전시를 선보인다.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사랑, 이별의 이야기'를 담은 한글고전소설 '춘향전'은 조선의 베스트셀러다. 특히 전주에서 간행된 '춘향전'은 '열여춘향수절가라'라는 제목으로 전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 다거서포, 서거서포 등 전주 지역의 많은 서포에서 발간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방각본 출판, 전주의 서포거리,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인물, 사회의식, 주제 의식 등에 대한 이야기를 '열여춘향수절가'의 주요 문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팔청춘의 남녀가 만나 영원한 사랑

을 약속하지만, 신분의 장벽과 부당한 권력에 의해 헤어졌다 결국 다시 만나 꽃피운 사랑. 춘향과 이도령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문장을 '열여춘향수절가'에서 집자하여 만든 전주 고유의 글씨체 '완판본체'로 다시 새긴 목활자 작품으로 선보여 관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에 맞는 문장을 선정해 원문, 현대어 번역, 판각 작품 등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전시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번 전시와 연계한 필사체험 프로그램 '마음을 쓰다, 일장편지(一장片紙)'는 독서대전 기간인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완판본문화관 전시실 내에서 만날 수 있다. 관계자는 "전주독서대전 기간 중 완판본문화관에서 운영되는 기획전시와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완판본 고전소설을 함께 읽고, 함께 쓰는 참여형 전시를 통해 완판본 한글고



전소설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2019 전주독서대전, '열여춘향수절가' 속 아름다운 문장을 함께 읽어 보면서 고전소설 읽기에 맛을 붙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전시에 관한 문의는 완판본문화관(063-231-2212)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농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있습니다. 신선한 우리 먹거리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의 우리 농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

“농협”

'같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농협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연의 나라 무주

자연과 생명의 등불, 반딧불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합니다

농협무주군지부장 송혁
무주농업협동조합장 박동열
구천동농업협동조합장 양승욱

무주반딧불
청정지역에서 자란 농산물

NH 농협